

##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의 위험성

고영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4권 12페이지)

오늘 미제는 세계제패의 야망을 기어이 이루어보려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로골적인 군사적침략과 위협, 야만적인 경제봉쇄를 비롯하여 물리적수단들에 의한 침략에 매달리는 한편 출판보도물을 통하여 저들의 썩어빠진 사상과 문화를 류포시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켜 제놈들의 추악한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각성있게 대하지 못한 결과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들에서 하루아침에 합법적인 정부가 무너지고 친미정권이 서는가 하면 종족간, 분파간의 대립과 충돌로 류혈참극이 벌어지고 사회정치적혼란과 무질서가 조성되어 인민들이 살 길을 찾아 정든 보금자리를 떠나는 등 세계도처에서 비극적인 사태가 빚어지고있는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것은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허용한다면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이 유린말살되고 인민들이 류혈과 참화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력사의 교훈을 보여주고있다.

미제의 출판보도물을 통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철저히 짓부셔버리자면 그 위험성을 똑똑히 알고 투쟁의 도수를 백방으로 높여나가야 한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책동과 심리모략전의 위험성은 무엇보다먼저 그것이 국가전략으로 정립되어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지난 시기 미제는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길잡이로 하여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감행하였다. 이것은 미제의 조선침략사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미제가 우리 나라에 침략의 마수를 뻗치기 시작한것은 19세기 30~40년대부터이다. 처음 미제는 무력적위협과 강압적방법으로 조선을 개방할것을 대조선전략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포함전술》에 의거한 여러차례의 무력침공에서 실패한 후 미제는 조선사람들의 머리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을 불어넣기 위해 종교를 중요한 침략수단으로 리용하려고 획책하였다. 하여 조선사람들을 숭미공미사상으로 중독시키고 사상문화적발판을 닦기 위해 미국 선교사들이 십자가를 들고 우리 나라에 대대적으로 기여들어왔다.

우리 나라에 합법적으로 처음 들어온 미국선교사는 일본에 파견되어 활동하고있던 미국감리교회 선교부대표 로버트 에스 막클레이였다. 그는 1884년 6월에 《조선에서 학교사업과 의료사업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를 들고 우리 나라에 들어왔다. 뒤이어 호레스 뉴튼 알렌, 언더우드, 아펜셀라 등 많은 미국선교사들이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다.

미국의 《아시아정복》을 제창하는데 앞장에 섰던 제이 더불유 프랏트는 어느 한 책에서 이렇게 썼다.

《…우리의 서쪽에는 잠에서 깨어나고있는 광대한 아시아세계가 놓여있다. 이것을 아메리카와 통합하여 세계상업의 기본간선으로 전면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 이교도의 강변에서 우리 선교사들의 선교소리가 들려야 하며 그리스도공화국의 형성계획이 실현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 기여든 미국선교사들의 목적은 조선사람들 특히는 봉건통치배들속에 그리스도교를 주입하여 발을 붙이고 나아가서 미국의 앞잡이들을 길러내는것이였다. 그리하여 선교사들은 《선도려행》의 명목으로 우리 나라 각지를 돌아치며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스도교를 부식시키려고 책동하였다.

우리 나라에 기여든 선교사들은 각지에 레배당, 병원, 고아원 등을 설치하고 자기들을 조선민족의 《벗》, 《방조자》로 위장하면서 사람들속에 숭미공미사상을 부식시키고 친미분자, 고용침자들을 키워내는것을 기본으로 하여 활동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을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굴종밖에 모르는 무지렁이로 길들이려고 무진애를 썼다.

미국선교사들의 설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었고 차츰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에게 선심을 쓰는 놈들이 장차 조선을 침략하여 지배하려는 흉악한 야심을 품은 침략의 무리로 보인것이 아니라 불쌍한 조선사람들을 동정해주고 위해주는 《하느님의 사도》로, 미국이라는 나라는 《하느님의 나라》로 보이게 되었다.

이렇게 음흉한 방법으로 미제는 벌써 오래전에 우리 나라에 제놈들에 대한 환상을 퍼뜨리면서 침략의 기반을 닦았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민족자주의식, 계급의식이 마비되어가게 되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신천땅에서 두달도 채 안되는 52일동안에 군주민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무려 3만 5 383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학살당한것은 이곳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환상에 물젖어있었기때문이었다. 당시 신천에는 미제가 키워낸 그리스도교인들과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바로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설마 사람이야 죽이겠는가고 생각하고 앉아있다가 무리로 생죽음을 당한것이다.

이렇게 지난 시기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제의 침략에서 사상문화적침투는 침략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제가 제2차 세계대전후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문화적침투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운 때로부터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이 대대적으로 감행되게 되었다.

미국은 1946년 상원의원 플브라이트의 발기밀에 악명높은 플브라이트법안을 채택함으로써 처음으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문화침략에 대한 법적담보를 제공하였다.

미국회는 1948년 또다시 《스미스-문트법안》을 채택하고 미국문화침략의 취지와 임무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때부터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정식 미국의 국가전략으로 되었다.

이 전략은 수십년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의 기조로 되었을뿐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실현하는 기본근거로 되었다.

아이젠하워(34대 미국대통령)는 대외선전의 효과성에 대해 《1US\$의 대외선전비용은

5US\$의 국방비용과 맞먹는다.》고 하였고 전 미중앙정보국 장관이었던 알렌 델레스는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을 변절, 부패시켜 파렴치한으로, 조용한 세계주의자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닉슨(37대 미국대통령)도 사상문화적침투의 중요성에 대하여 《21세기에 들어가 무력침략의 대가는 더욱 비싸질 것이며 경제력과 사상적리념의 호소력이 결정적요소로 될 것이다. 문화확장과 침투의 방법으로 사상의 종자를 심어놓으면 그 종자는 조만간에 평화적행의 꽃망울로 피어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미국신문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글을 실었다.

《미국의 가장 큰 수출상품은 땅에서 나는 농작물이나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아니라 영화와 텔레비존프로그램, 음악, 서적, 컴퓨터용소프트웨어를 비롯하여 대량생산되는 류행문화제품이다.》

미국 상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1996년에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오락제품의 국제적인 판매액이 602억US\$, 1999년에는 1 000억US\$에 달하였고 2001년에는 무려 1 600억US\$로서 그 어느 부문보다도 높았다.

이러한 사실과 수자들은 미제가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얼마나 피눈이 되어 날뛰었는가를 보여준다.

미제는 군사적방법으로 침략목적을 이룰수 없다고 판단한 나라들에 대하여 반동적인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바로 미제는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의 방법으로 총 한방 쏘지 않고 붕괴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후 날로 장성강화되는 사회주의력량을 힘의 방법으로는 결코 굴복시킬수 없다는것을 간파한 미제는 군사적압박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각종 사상문화적수단을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고도 끈질기게 매여달렸다.

미국은 《자유유럽방송》과 《자유방송》, VOA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물을 리용하여 사회주의나라들에 황금만능의 부르조아사상과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류포시키며 내부에 숨어있는 반동세력의 소요를 부추기는 선전을 로골적으로 감행하였다.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은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할 대신 오히려 그에 길을 열어주는 청맹파니짓을 하였다. 결과 사회주의제도에서 살면서도 사상교양 하나 똑똑히 받지 못하고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심리모략선전에 와해변질된 이 나라 사람들은 사회주의배신자들의 책동에 속아넘어가 사회주의를 지켜내지 못하였다.

미제는 내부가 불안정하고 반대파세력의 소요가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

미제가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으로 다른 나라들의 합법적인 정부를 정복한것은 중동지역과 북아프리카지역에서 일어난 《색갈혁명》을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한 상인의 자살을 계기로 사회적충돌이 일어났을 때 미제는 이와 관련한 동영상 컴퓨터망을 통해 류포시키고 대규모의 사회적혼란을 야기시켜 종당에는 튀니지의 벤 알리정권을 붕괴시켰다.

2011년에 튀니지의 벤 알리정권이 붕괴되자 그 여파는 예집트, 예멘을 비롯한 여러 나

라들에 번져졌으며 이 나라들에서도 합법적인 정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군사적침략에서도 주역을 담당하고있다.

미제는 만전쟁과 발칸전쟁, 아프가니스탄전쟁, 이라크전쟁 등 지난 세기말과 21세기에 들어와서 감행한 전쟁들에서 군사적침략에 앞서 해당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집요하게 감행함으로써 그 나라 군대와 인민들속에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심을 주입시켰다. 그리하여 큰 저항을 받지 않고도 군사적목적을 쉽게 이룰수 있었다.

미제는 2003년 이라크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전쟁의 《정의》는 이라크지도부가 아니라 미국에 있다는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것, 이라크지도부를 《독재자》, 《악의 집단》으로 몰아붙여 그에 대한 이라크군대와 인민들의 신뢰를 허물며 지도부의 분열과 반목질시를 조성하는것, 전쟁에서 미국의 《승리》와 이라크의 《패배》의 불가피성을 인식시키는것, 허위군사작전계획들을 류포시켜 혼란과 무질서를 조성하는것, 미제침략군의 군사기술적우세와 《위력》에 대해 대대적으로 광고하여 공포를 조성하는것 등을 심리모략선전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2002년 12월 중순부터 이라크에 대한 심리전과 선전공세를 대대적으로 벌렸다.

미제는 거액의 자금을 들여 새소식방송국을 세우고 특수작전비행기를 리용하여 매일 서로 다른 주파수로 17시간씩 이라크에 대한 모략방송을 감행하면서 이라크군대와 인민들속에서 반싸담감정을 고취시켰다.

그리고는 이라크에서 싸담 후세인정권이 무너지면 이라크인민들은 《독재체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누릴수 있다느니, 미국은 《해방자》이며 따라서 이라크인민들은 미국을 도와나섬으로써 하루빨리 《자유》의 날을 맞이해야 한다는 식의 심리모략방송을 들이댔다. 여기에 속아넘어간 이라크군대와 인민들은 침략자들을 환상을 가지고 대하다 보니 변변한 싸움 한번 똑똑히 벌려보지 못하였으며 지어 침략자들을 《해방자》로 맞이하는것과 같은 어리석은짓을 하였다.

미제는 이 전쟁의 구체적인 행정에서도 심리모략전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미제는 가짜를 진짜처럼 만드는 정보생성기술을 리용하여 이라크군에 가짜명령을 하달하고 지어는 이라크의 국가방송으로 둔갑하여 싸담과 이라크군부 및 정부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모방하여 가짜명령과 가짜지시를 하달하는 등 이라크군지휘체계에 혼란을 조성하고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책동에 매달렸다.

결국 이라크는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녹아나 변변히 저항도 해보지 못하고 망하고말았던것이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각종 모략기관과 기구를 두고 세계도처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미제는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침투를 국가전략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직접 현지에서 집행할수 있는 기관과 기구들도 수많은 내왔다.

미국은 미국무성소속기구로서 정보 및 문화교류국을 두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모략선전을 위한 출판보도물의 전파를 합법적으로 지휘하고있으며 미중앙정보국의 지휘밑에 비밀리에 반동적출판보도물을 뿌리기 위한 작전도 폈다.

미국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 여러 나라들에 《공보원》을 설치하고 그 나라들에 반

동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썩어빠진 미국식생활양식을 류포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책동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1960년대 중엽에 이르러 미중앙정보국과 당시 미국가안전위원회의 지령을 받는 《공보원》이 1만여명의 직원을 가진 방대한 역량으로 꾸러졌다. 《공보원》은 105개 나라에 239개의 지부를 두고 57종의 잡지와 22종의 신문을 발행하고 6 000여개의 영화시설을 운영하면서 반동적인 사상과 미국식생활양식을 대대적으로 전파하였으며 베라와 불순선전물의 류포, 거짓보도, 위조화폐와 문건의 발행 등 보다 교활한 침투방법을 고안해냈다.

미제는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하여서도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광분하고있다.

미국의 USI통신사는 백수십개 나라의 200여곳에 지사를 가지고 매일 매시각 사회주의에 대한 악랄한 비방중상과 허위날조, 퇴폐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를 들이밀고있으며 세계도처에 300여개의 방송국을 설치하고 매해 수십억US\$를 탕진하면서 저들에 대한 환상과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방선전을 일삼았다.

지금 세계인구의 5분의 1이 살고있는 유럽과 북아메리카지역의 서방나라들에는 세계공보량의 5분의 3이 집중되어있는 반면에 세계인구의 5분의 3이 살고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는 세계공보량의 5분의 1이 있을뿐이다.

미제를 비롯한 서방은 공보분야에서의 저들의 우세를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반동적인 부르조아사상문화와 썩어빠진 생활양식을 류포시키기 위하여 광분하고있을뿐아니라 발전도상나라들의 민족공보체계개발을 《원조》한다는 미명하에 이 나라들의 민족공보활동에 간섭하는 전횡을 일삼고있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는 반제반미적인 나라들뿐아니라 자기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에까지 마수를 뻗치고있다.

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텔레비존방송국들에서는 매해 영어프로를 총 52 000시간 내보내는데 그중 캐나다에서 제작한 프로는 28%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총 27 000시간에 달하는 프랑스어프로중 캐나다에서 제작한것은 불과 23%였다. 나머지시간에 방영되는 텔레비존방송프로들은 모두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미국산프로들이라고 한다.

또 1985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텔레비존에서의 외국문화》라는 연구보고에 의하면 미국에 대한 일본의 텔레비존정보의 《수출》과 《수입》비례는 1:20이었다.

이것은 캐나다나 일본의 문화라는것이 미국의 지배를 받고있으며 나아가서 이 나라들의 문화가 아메리카화, 양키화되어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세계도처에서 악랄하게 감행되고있는 미제의 파렴치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국가적전략에 따라 목적의식적이며 주도세밀한 계획밑에 벌어지고있는것으로 하여 이에 경각성을 높이고 그것을 주동적으로 폭로분쇄해버리지 않으면 국가의 존엄도, 인민대중의 자주권도 지켜낼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의 위험성은 다음으로 그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랄하고 비렬하게 감행되고있다는데 있다.

미제는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활하고 파렴치한 방법과 수단들을 거리낌없이 적용하고있다.

워싱턴에서 작성된 《자유유럽방송》을 위한 비밀지령서에는 당신이 말하는 그 장소에

당신이 직접 가있는듯 한 인상을 조성할것, 당신이 비밀정보출처를 가지고있는듯이 보일것, 비난, 비난 또 비난 이 전략수법은 가장 효과적인 선전형태이다, 헛소문과 비방증상을 퍼뜨릴것, 그러나 당신자신은 진실을 말하듯이 행동할것이라고 지적되어있다.

미제는 바로 이러한 교리에 기초하여 흑백을 전도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미제가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서 의거하고있는 기본방법은 외곡된 정보와 헛소문, 잘 가공된 허위날조자료들을 통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비난선전이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킬 때 미국은 이 방법을 적극 악용하였다. 쏘련에서 짜하로브사건이 일어났을 때, 뿔스까에서 반정부세력의 부추김을 받아 내부소요가 일어났을 때, 이전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 《쁘라하의 봄》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제는 외곡된 정보와 헛소문, 잘 가공된 허위날조자료들을 가지고 해당 나라 정부들을 비난 공격하였으며 그 나라 인민들을 반정부소요에로 부추겼다.

이러한 책동은 세 세기에 들어와서도 세계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끈질기게 감행되고있다. 미국의 주도하에 벌어지고있는 《색갈혁명》, 《아랍의 봄》작전 등이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련이어 일어나 비극적인 사태가 조성되고있는것은이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미제는 또한 여러가지 교활한 방법을 리용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벌리고있다.

제놈들의 특정한 견해를 선전하기 위하여 무소속기자들의 객관보도처럼 위장한 허위날조자료들을 대중보도수단들에 넘겨주어 류포시키는 방법, 《제3자》의 목소리로 둔갑시킨 가짜정보를 진짜로 가장시키는 방법, 다른 나라 출판물과 기자들을 매수하여 친미적인 자료들을 싣게 하는 방법 등 미국의 심리모략전은 실로 다종다양하게 감행되고있다.

2005년말 미국의 《로스안젤스》신문은 미국방성이 이라크신문들에 친미적인 자료들을 싣기 위해 자기의 첩자들을 리용하여 자금을 투자한 사실을 공개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이라크의 출판물에 게재된 친미기사들의 가격은 건당 400US\$로부터 2 000US\$에 달하였다고 한다.

특히 미제는 신문, 통신, 방송, 잡지뿐만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을 교활하고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이 일명 《스텔스 인터넷》라고 하는 《지하인터넷》이다.

이 《지하인터넷》은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에서 반정부음모를 꾀하는 불순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준다고 한다. 미국은 《인터넷자유》를 떠들면서 다른 나라들의 인터넷방어벽을 허물어버리기 위해 《지하인터넷》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지하인터넷》라고 하는 이 모략수단은 어느 한곳에 간섭을 받지 않는 인터넷체제를 비밀리에 구축하여 사용자가 해당 지역의 기본네트워크를 에두를수 있게 한다.

미제는 《지하인터넷》기술을 통하여 《인권》단체성원들과 반대파들로 하여금 해당 나라 정부의 통제밖에서 정보를 교환할수 있도록 하여 합법적인 정권을 뒤집어엎는데 리용하도록 하고있다.

미국정보기관의 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우덴은 이에 대하여 미국은 전화뿐만아니라 인터넷까지도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리용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하였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지역을 사회적불안정과 정치적혼란의 란무장으로 만들어놓은 《아랍의 봄》작전이 이것을 잘 보여준다. 2011년 튀니지에서 시작된 사회정치적혼란이 중동과 북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과급되어 이 나라들에서 하루아침에 정부들이 붕괴되고 인민들이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도란에 빠진것은 바로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심리모략전의 결과였다.

미제는 이와 같이 악랄한 방법과 수단을 리용하여 저들의 반동적인 사상문화를 들이밀고 그 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변질시키기 위한 심리모략전에 광분하고있는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제의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은 극도에 달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적들은 심리모략전에 큰 기대를 걸고 우리 내부에 썩어빠진 자본주의사상문화를 침투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습니다.》(《김정일선집》 증보판 제22권 205페이지)

오바마(44대 미국대통령)는 2015년 정초 기자회견마당에 나서서 조선이 많은 군대와 핵기술, 미싸일을 보유하고있기때문에 고립압살하는데서 선택범위가 좁아지고있다고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류입으로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체제를 전복하려는 흥심을 드러내놓았다.

미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의 사회주의위업을 말살하기 위하여 침략의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한편 우리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사상문화적침투와 심리모략전에 집요하고 끈질기게 매달리고있다.

미국은 우리의 수소탄시험 완전성공,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로켓 《화성-12》형, 지상대지상중장거리전략탄도탄 《북극성-2》형,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형 1차, 2차시험을 비롯하여 핵무력건설에서 다계단으로, 련발적으로 일어나는 성과들에 대하여 《도발》, 《평화에 대한 도전》 등으로 매도하면서 악의에 차서 우리에게 대한 비난선전의 도수를 그 어느때보다 높이고있다.

미제는 반공화국고립압살을 노린 군사적위협공갈과 야만적인 경제봉쇄책동을 감행하는가 하면 《자유아시아방송》을 비롯한 모략선전수단들을 통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우월성》과 황금만능주의, 퇴폐적인 서방문화와 생활풍조를 설교하고있다. 이와 함께 퇴폐적인 내용을 담은 록화물, CD원판, 소형라디오 등 불순출판선전물들을 들이밀어 우리 내부를 와해변질시키기 위한 모략책동도 악랄하게 벌리고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 내부에 혼란을 조성하며 부르조아생활양식을 류포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그를 위해 우리의 주요언론기관들에 대한 해킹공격과 정보절취 등을 시도하는 한편 인터넷홈페이지들에 불순모략자료들을 심어놓기 위해 온갖 모지름을 다 쓰고있다.

미제는 특히 남조선을 반공화국심리모략전의 전초선으로 지정하고 식민지노복인 피뢰패당과 인간쓰레기들을 돌격대로 내몰고있다.

미제는 《비정부기구들을 통해 북주민들의 인식을 바꾸어놓아 북을 붕괴시킨다.》는 꾀변을 꾀치면서 국가예산에 특별항목을 정해놓고 《인권옹호》의 탈을 쓴 《미국국립민주주의기금》,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을 통해 남조선의 반공화국모략단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대주고있다. 2012년 6월 중순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성의 《북조선인권특사》라는자는 미국이 1 000만US\$를 《북조선의 내부교란》을 위해 활동하는 극우익보수단체들에 제공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였다.

한편 미제는 나라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짓고 도망친 인간추물들을 굶어모아 《북

인권국제영화제》, 《인터넷전시회》, 《책출판》 등 각종 반공화국선전광대놀음을 매일과 같이 벌여놓고있다. 우리 공화국의 체제전복을 노린 특대형국가정치테로시도, 허황하기 그지 없는 《급변사태》설 류포, 반공화국베라살포소동은 모두 미제의 교활한 부추김과 배후조종에 의한것이다.

우리는 미제의 사상문화침투와 심리모략전을 철저히 짓뭇개버리는데 우리의 운명이고 미래이며 삶의 전부인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가 있고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철옹성같이 지켜나가는 길이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그 독소가 우리 내부에 절대로 침습하지 못하도록 높은 혁명적경각성을 가지고 온갖 비사회주의적현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뿐아니라 대적언론전의 도수도 더욱 높여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사상문화적침투, 심리모략전